

사랑하는 친구, 동역자 여러분께,

"순도르 바따시" - 말 그대로 "아름다운",
고마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
온 후 정말 정말 더운 날씨가 저희의
방글라데시 재입성을 축하해 주었는데^^
오늘은 아침부터 구름이 끼고 바람도
불고...너무 행복합니다.



(저녁이 되어서도 집안의 온도계는 34.2 C (93.5F)
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ㅠㅠ)

저희는 일주일 전 사역지로 돌아왔습니다.
50 파운드씩 꼭꼭 채운 여섯개의 부치는
수화물과 작지만 그에 못지않게 무거운
핸드캐리 세개, 그리고도 찢어질 만큼
가득채운 백팩 세개까지...세번의 비행과
긴 버스수송에도 단 하나의 분실물도
없이 잘 도착해준 짐들과 함께 말이지요.



(사진엔 잘 보이지 않지만 한 사람에 커다란 가방
3 개씩! 다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한건 큰 딸
하영이가 함께 들어 올 수
있었다는겁니다.



(세번째 비행기, 드디어 집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사실 지난번 기도편지를 드릴때만해도
방글라데시에 락다운이 지속되고 있어서
모든 관공서가 닫혀있는 상태였습니다. 약
한달 전 락다운은 풀렸지만 5 월에 신청한
서류들이 언제 수속이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기대한 것보다 훨씬 빨리 비자수속이 진행되어 9 월초 함께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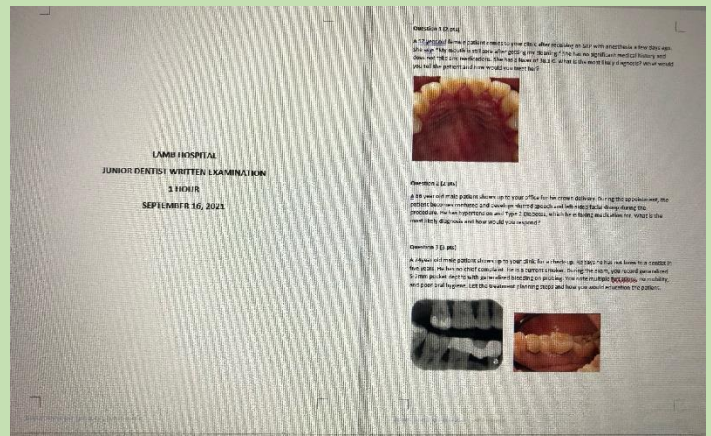


(하영이가 나고 자란 모교회에서 떠나기전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공식적으로는 2 주의 자가격리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말뿐인 격리지침이라 백신접종도 마치고 음성 테스트 결과도 받은 저희는 병원의 권유대로 3 일간의 자가격리를 마치고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큰딸도 함께 말이지요!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설령 다시 락다운 상황이 온대도 치과는 시작되어야한다!!는 생각이 모두에게 간절해서 저희뿐 아니라 여러 스태프들도 최선을 다해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도착한지 딱 일주일만에 스태프 고용을 위한 시험과 인터뷰를 진행했고 다음달 초엔 우선 비공식적으로라도 치과를 시작해보려 계획하고 있습니다.



(치과의사 선발을 위한 시험문제도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본격적으로 치과를 시작하기 전 재료와 장비들을 다시 하나하나 정리하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으로 저희에게 전해진 재료하나 장비하나마다 한분 한분의 이름이 새겨진듯했습니다.

오프닝 D-day 가 거의 정해지고 나니 기구나 장비 정리 말고도 준비하고 점검해야할 일들이 어찌나 많은지요. 치과개원이 계속 늦어지는 바람에 딸이 이번에 함께 들어와 시작부터 도와주게 된게 아버지의 큰 그림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치과쪽으로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저혼자 그 많은 일들을 처리하게 되었다면 엄청난 부담이었을 테니까 말이지요.



(현지 치과의를 교육하기 위한 재료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몇달간 떠나있다 돌아온 내과는 오랜기간의 코비드 락다운으로 환자가 많이 줄었고 몇몇 주니어 닥터들은 떠나고 또 몇몇 닥터들은 새롭게 조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락다운이 풀리고 점차 환자수가 회복되며 조금씩 바빠지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모든 것이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사실 이번에 몇달간 사역지를 떠나 있으면서 여러 고민이 있었습니다. 사역의 연속성이 계속 끊어지는데 방문비자로라도 사역을 계속 진행하는게 옳은 일인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현지인 스태프들에게 저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울것 같았습니다. 비자의 성격상 적극적으로 병원일을 할 수도 없고 늘 한발짝 뒤에서 일을 해야하는 상황이 많이 아쉽고 답답하기도 했지만 지금으로선 딱히 다른 대안이 없었으니까요.

저희가 떠나온 사이 20 여년 사역하던 베테랑 선교사님도 은퇴하시고 다른 두명의 의사도 비자 갱신이 안되서 일단 떠나있는 상황이다 보니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한국에 들렀을 때 방문한 여수의 애양병원 박물관에서 본 사진이 생각났습니다. 그곳엔 애양병원의 초기부터 길고 짧게 섬긴 선교사님들의 사진들이 많이 있었는데 몇십년, 혹은 몇년씩 섬기신 분들의 사진 뿐 아니라 1~2년, 아니 단 몇개월 섬기신 분들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거대한 모자이크 안에는 그 모든 분들의 시간과 섬김이 다 계획되어 있었고 그분들은 그 시간 정확히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린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곳에서 얼마나 오랜 기간 섬길 수 있을지, 어떤 모습으로 섬기게 될 지 저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저 저희 자신을 아버지께 맡기어 드리기만 하면

이곳에서의 시간들도 아버지의 멋진 작품의 한 조각 퍼즐로 맞추어지는 것이겠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사실 돌아오기 얼마전 방글라데시 정부가 저희가 원래 신청했던 비즈니스 비자를 까다롭게 모니터 하기 시작하면서 한 한국분이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하고 다음날 한국으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방문 기간을 불과 몇주정도로 제한하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3 개월까지 허락하는데다 1 년 총 체류일자도 엄격히 제한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올 초 저희가 신청한 비즈니스 비자대신 방문비자가 나왔을 때 얼마나 실망했었는지, 다시 비즈니스비자로 바꿀 수 있는 길은 없는지 백방으로 알아보았었는데 좋으신 아버지께서 이 모든 상황에 앞서 저희의 길을 준비해 주셨던 거지요.

그래서 요즘은 무슨 일이 저희 생각이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마다 서로에게,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하곤 합니다.

"아버지는 다 계획이 있으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것을 다 다스리고 계시며, 모든것을 통해 당신의 기쁘시고 전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인지!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저희 모두가 "다~ 계획이 있으신" 아버지께 저희를 통째로 맡겨드리고 아버지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기대하며 참된 쉼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해주세요!

1. 인터뷰를 거친 지원자 중에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스태프가 선택되어서 새로 시작되는 치과를 함께 잘 섬길 수 있도록

2. 1 년 예정으로 오게된 큰 딸 하영이가 그 시간동안 하나님을 맘껏 즐거워할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과의 깊고도 친밀한 관계 가운데 지낼 수 있기를

3. 외국인 사역자, 특히 의사들이 많이 떠나게 되면서 점점 현지인 지도자에게 역할이 이양되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4. 내과에서 현지인 젊은 기독교인 의사가 계속 지혜롭게 내과를 잘 이끌고 앞으로 훌륭한 리더로서 성장하도록 돕고 격려하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